

육용오리 새끼오리 가격전망

생산량 증가되고 있어 약세지속될 전망

본회가 자체집계한 10월 오리 사료생산량 통계를 보면 전체오리사료 생산량은 9천5백76톤으로 전월에 비해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22%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 생산량을 보면 어린오리 사료는 전월에 비해 13%가 감소하였고 육용오리 생산량도 전월에 비해 9%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11월과 12월 초순까지 육용오리 출하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산란오리 생산량은 전월에 비해 13%가 증가돼 8월이후 산란오리 사육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11월중순이후 새끼오리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주목할 것은 10월의 전체사료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22%가 감소한데 반하여 산란오리 사료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4.4% 줄어드는데 그쳐 12월 중순이후 육용오리 출하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육용오리 가격은 현재 농가 출하일령이 50일령,수당가격 중부권 5천원선 호남권 4천5백원선에 형성되고 있어 12월 초순까지 출하일령은 약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이지만 12월 중순이후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역시 육용오리 가격은 현재의 수준에서 머무르거나 12월 중순이후에는 더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육용오리 소비량이 현재보다 좋아지지 못하면 내년초에는 육용오리 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돼 사육농가의 신중한 입식이 요망되고 있다.

새끼오리 가격은 현재 1천원에서 1천1백원선에 머물고 있으나 호남권에서 새끼오리 가격인하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의 부화장들이 지난 4월과 5월에 신규로 입식한 후보종오리가 생산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부화장들의 새끼오리 생산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육용오리 가격의 장기호황에 따른 오리사육열기가 아직도 속그러들지 않고 있어 새끼생산량이 늘어나더라도 12월까지의 약세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큰폭하락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단지 12월이후 육용오리 가격이 큰폭으로 하락하는 경우 육용오리 사육농가들의 농장경영이 크게 악화되고 부화장들의 새끼생산물량이 늘어나 겹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초부터 새끼오리 가격역시 큰폭 하락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